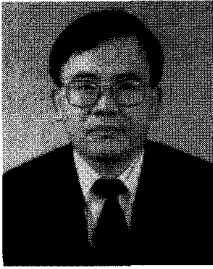


러브커널 사건



박석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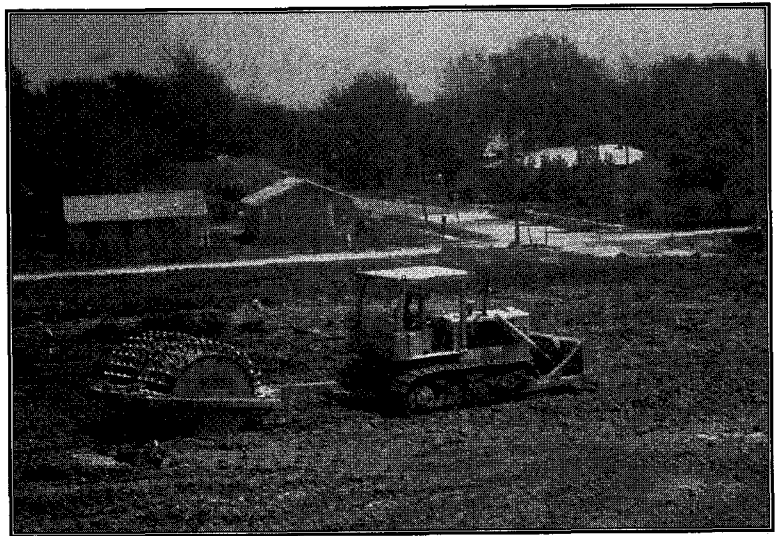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미 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로 그 장엄함은 널리 알려져 있다. 북미대륙의 오대호 중에서 에리호와 온타리오호를 연결하고 있으며 이 두 호수의 수면 고도 차이가 85미터에 달하여 이 폭포의 낙차가 매우 크다. 또한 이 폭포가 없으면 미국 중부 내륙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선박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1892년에 윌리엄 러브(William T. Love)라는 야심 많은 사업가가 이곳에 약 10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운하를 건설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발전소를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직류를 사용하던

당시는 장거리 송전이 매우 비경제적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발전소를 세우면 많은 공장을 유치할 수 있음은 물론 인구 20만내지 100만에 이르는 대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러브의 운하건설 계획은 주 정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승인과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6킬로미터 정도의 운하가 만들어져갈 무렵 당시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은행이 파산하고 이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게다가 1894년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에 의해서 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교류전류가 발명되어 러브의 사업 계획이 별 의미없게 되어 버렸다. 결국 러브는 길이 1.6킬



▲ 러브커널의 주택은 쓰레기매립장위에 건설되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땅에서 누출되는 유독성 화학물질로 인해 모두 이주를 해야 했다.

로미터, 넓이 14평방미터, 깊이 3~12미터의 러브 커널(Love Canal)이라 불리는 불명예스러운 웅덩이만 남기고 1910년 사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그후 몇십년간 이 러브 커널은 방치되어 있다가 1940년대에 들어와 후크케미칼(Hooker Chemical)이라는 화학공장에서 인수하여 공장에서 버리는 화학물질을 55갈론 철제 드럼통에 넣어 이 운하에 매립하게 되었다. 후크케미칼은 1941년 이 러브 커널이 진흙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이곳이 그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성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기에 매우 적절한 곳으로 판단하고 1942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후크케미칼은 1942년부터 1950년 사이에 무려 2만여톤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이 운하에 매립하였으며, 나이아가라시도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였고, 미 육군도 2차 대전시 무기개발을 위한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유해성 쓰레기를 이곳에 매립하였다. 그리고 이 화학공장은 1953년에 이 땅을 1불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나이아가라시 교육위원회에 기증하였다. 교육위원회는 1955년 이 땅에 초등학교를 건설하게 되었고 일부는 주택지로 사용되었다.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진 이후 학생

들은 운동장에서 이상한 화학물질이 나오고 또 여기에 돌을 던지면 돌이 연기를 내면서 부식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당시 환경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이러한 현상에 시민들이나 학교 당국은 별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970년대 초 건물 지하실에 가끔 이상한 물질이 스며나오는 일이 있고 하수구가 검은 액체에 부식하는 일이 있었으나 시당국 역시 별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 후 피부병과 두통으로 자주 고통을 당하곤 하였다. 1976년 큰 홍수가 있는 후 이 지역의 가로수와 정원의 꽃이 죽어 갔으며 수영을 즐기던 연못에서는 유해성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되었고 토양에서도 유독물질을 포함한 물이 표면으로 스며 나왔다. 또한 많은 주민들은 신체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 시당국이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지하수가 유독성화학물질로 심하게 오염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학교와 시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이라는 한 신문기자는 1976년부터 러브커널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하여 계속해서 보도하기 시작하였

다. 브라운 기자는 나이아가라 가제트(Niagara Gazette)라는 지방 신문을 통하여 러브커널에 묻혀있는 유독성화학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1978년 이 신문의 보도를 본 로이스 깁스(Lois Mary Gibbs)라는 한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현재 앓고 있는 간질병이 학교 아래 묻혀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때문이라 생각하고 학교당국에 전학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녀의 아들은 이 학교에 입학한 후로 백혈구 세포가 계속 감소하였으며 뇌졸증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결국 이 학교의 폐쇄를 청원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각 학부모들의 집을 방문하여 자녀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신문보도와 청원 등으로 인하여 뉴욕주 보건당국은 이지역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이지역 주민들의 유산율이 타지역에 비하여 4배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1973년에서 1978년 사이에 출생한 16명의 어린이 중 9명이 정신박약, 심장 또는 신장질환 등 심한 선천성 기형이라는 것이 보고되었다.

1978년 8월 뉴욕주 보건당국은



▲ 쓰레기 매립지역의 유독성화학물질 누출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238가구가 이 지역을 즉시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미연방환경보호청에서는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였고 1980년 5월 당시 카터 행정부는 주변 810가구를 추가하여 이 지역을 환경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람의 거주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문제의 초등학교는 폐쇄되었으며 주민들로부터 수많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수십억불에 달하였으나 책임의 대상이 없었다. 미연방환경보호청은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1980년 5월 카터 행정부는 주변 800세대를 환경재난지역에 추가하였다. 그 후 미국 정부는 이 지역을 정화하기

위하여 1억불 이상을 소모하였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지금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유령도시로 남아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연방정부는 1980년 12월 슈퍼펀드(Superfund)법을 제정하여 장래 5년동안 러브커넬과 같은 유해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160억불에 해당하는 연방 기금을 조성하고 유해지역 조사, 처리, 보상을 시작하였다. 이 법률의 시효인 1985년 9월 30일까지 미연방환경보호청은 2만 766개의 유해지역을 찾아내고, 507개의 매우 위험한 지역에 대하여 유해물질 제거를 실시하였다. 5년간의 한시적인 이 법은 1986년 10월 레이건 정부에 의해서 재연장되었고 85억불의 기금이 추가되었다.

러브커넬 사건은 환경에 관한 무지가 얼마나 엄청난 재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었다. 교육을 위해 기증한 땅이 이처럼 큰 환경재난을 유발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무지에서 기인된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 땅에 묻어 버리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살생력을 가진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